

[ 사회 ]

# 중학생 전원 학력평가시험 본다

## 광주시교육청·전교조 합의...응시생 10%만 등위 매겨

논란이 돼 온 '광주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며, 학력진단을 위한 표집 대상은 응시생의 10% 수준으로 한정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최근 전교조 광주지부 대표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 다음달 23일 광주시내 82개 중학교 1천864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과 전교조 양측은 이 중 20개 학교에서 학년당 3개 반씩 모두 180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전수평가

를 고수해왔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평가철회 또는 표집평가를 요구해왔다.

양측은 또 평가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는 것은 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평가 표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학생에게 통지하되 석차를 매기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학력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조장하고 평준화 근간

을 흔들 수 있다"며 평가를 하지 않거나, 표집 평가만 할 것을 요구해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모든 학생들이 평가를 하게 된 점은 다른 시·도에 비교했을 때 진일보한 면이 있다"며 "표집 대상은 지역, 공사립, 남·여 등을 고려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전수평가 대신 표집평가를 하도록 해 학력 과열경쟁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노인의 날 "오늘만 같았으면" 2일 광주시 남구 사동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노인들이 '우산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2일 광주시 남구 사동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노인들이 '우산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 "中 학교운영비 돌려달라"

## 광주 등 학부모 120명 반환청구 소송 내기로

광주를 비롯한 서울, 경기, 경북 지역 학부모 120명이 오는 9월 각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중학교 운영지원비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

2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지난 2002년 이후 자녀가 중학교를 다녔던 11명의 학부모가 광주시교육청에 '부당하게 징수한 학교 운영지원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는 8곳이다.

관할적으로 내고 있는 중학교 운영

지원비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3항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뒤 납부한 운영지원비는 돌려줘야 마땅하다는 것.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내 중학교가 징수한 학교 운영지원비 총액은 115억4천808만원(2004~2005년 평균)으로 학생 1인당 17만3천700원인 가량이 납부되고 있다.

학교 운영지원비는 대부분 교원 연구비나 비정규직 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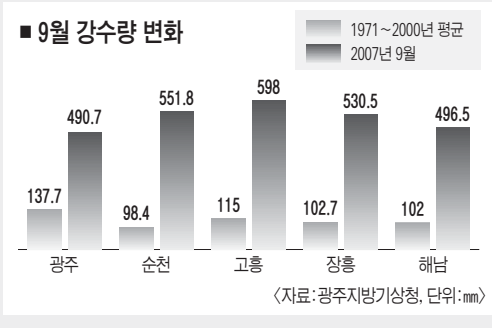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최명자 교육부장은 "광주지역 학부모의 소송액은 1인당 평균 60여만원(3년 기준)"이라며 "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지만 학부모 및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는 위험 부담 등으로 인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집행부로 참가 대상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장수중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학부모가 500여 명을 넘어섰고, 폐지 서명자가 4천여 명에 이른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라는 큰 틀에서 보면 법원·검찰·변호사 세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법조3류이라고

# 올 9월 강수량 평년의 4배 광주·전남 농사 피해 우려

높푸른 하늘에 오곡백과(五穀百果)가 무르익는다는 가을. 광주·전남지역의 9월 강수량이 오히려 평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하고 일조시간은 2배이상 줄어 농사에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광주지역의 9월 강수량은 490.7mm로 평년값(1971~2000년)인 137.7mm보다 2.5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이다.

순천의 경우 9월 한 달에만 551.8mm의 비가 쏟아져 평년값(89.6mm)의 4.6배를 넘어서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다.

9월의 강수량은 제 11호 태풍 '나리'가 직접 상륙했던 고흥 598mm(평년값 115mm)를 최고로 ▲안도 554.1mm( / 129.5mm) ▲장흥 530.5mm( / 102.7mm) ▲해남 496.5mm( / 102mm) ▲목포 426.5mm( / 118.4mm) ▲여수 312mm( / 130.7mm)를 기록했다.

이처럼 강수량이 급증하면서 일조시간도 평년에 비해 2배가량 줄어들었다.

고흥의 9월 일조량은 99.7시간으로 평년값인 214.9시간에 비해 53.6%가량 줄었고 ▲해남 97.9시간(52.4% 감소) ▲장흥 92시간(45.7% ) ▲완도 104.8시간(42.6% ) ▲광주 104.3시간(42.6% ) ▲여수 113.5시간(40.2% ) ▲목포 118.4시간(36.6% )을 보였다.

전남농업기술원 이용정 기술보급과장은 "강수량이 많고 일조시간이 적을 경우 과실은 당도가 떨어지고, 벼 같은 경우 여부는 비율이 급격히 저하된다"며 "10월달에 맑은 날씨가 이어져야만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안개 조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구름 조금	16~27℃
포항	구름 조금	17~25℃
여수	구름 조금	18~25℃
안동	구름 조금	14~26℃
대구	구름 조금	16~28℃
부산	구름 조금	12~27℃
인천	구름 조금	13~27℃
서울	구름 조금	16~27℃
대전	구름 조금	15~28℃
전주	구름 조금	16~25℃
충주	구름 조금	15~26℃
청주	구름 조금	16~25℃
영주	구름 조금	15~26℃
울진	구름 조금	15~26℃
울릉도	구름 조금	15~26℃
독도	구름 조금	18~22℃

10월 3일 (음 8월 23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동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6:20 썰물 < 11:24  
여수 밀물 < 00:45 썰물 < 06:52

▲해돋이 06:28 ▲해질 18:15 ▲달뜨기 23:16 ▲달지기 13:4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날씨						
최저/최고	17/26	17/26	18/24	17/25	16/24	15/23

### 40세 이상 70% 심장질환 '위험'

4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심장건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순환기학회 심장수호주간(7~13일)을 맞아 40~70세 성인 3천253명을 대상으로 심장건강을 평가한 결과 대상자의 69.8%가 혈압, 혈당, 복부비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5개 심장 건강지표 가운데 질병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 이상이거나 위험수준에 있는 항목이 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 측은 심장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혈압, 혈당 외에도 복부비만, 중성지방 그리고 높은 수축성 좋은 HDL콜레스테롤 등 5개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5개 지표 가운데 수치가 경고수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이거나 질병수준인 항목이 1개인 경우를 '심장 건강 열등생'으로 분류했다. 또 질병수준인 항목이 2개 이상인 사람은 '심장 건강 나체생'으로 판정했다.

조사결과 40~70세 성인 47.5%가 '열등생'에 속하며 나체생도 22.3%에 달했다.

특히 5개 지표 중에서 혈압이 정상인 비율은 38.4%에 불과해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HDL콜레스테롤은 49.3%만이 정상치보다 높아 혈압 다음으로 성적이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자의 경우 40.3%가 경고, 23.6%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각각 19.8%와 12.6%인 남성에 비해 남녀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복부비만과 중성지방의 경우 각각 34.8%와 29.7%가 정상치를 벗어났다.

/연합뉴스

### 전국체전 개회식때 롯데마트 하루 휴장

광주 월드컵경기장 단지 내 롯데마트와 우일골프연습장이 제88회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8일 하루 동안 문을 닫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베트남 국제결혼

몸은 아플겁니다. 그러나 **아오자이 국제결혼** 과 함께하는 현실은 더 아름답습니다.

**본사만의 장점**

- 1. 본사만의 전문 상담사
- 2. 본사만의 전문 상담사
- 3. 본사만의 전문 상담사
- 4. 본사만의 전문 상담사
- 5. 본사만의 전문 상담사

**800만원대** 가솔·과·가·비행 **실속경제비용**

062) 232-8966  
010-5256-8966

# 바지속의 마법 - 란픽는 "루스터핀츠"

루스터핀츠

루스터핀츠는 바지속의 마법입니다. 바지속의 마법입니다. 바지속의 마법입니다. 바지속의 마법입니다. 바지속의 마법입니다.

1577-2787